



4 월의 향연 , 길림성 봄나들이 명소로 떠나봅시다

만물이 소생하는 4 월은 따스한 해설 아래 산책하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이다. 시민들은 어디에서 봄놀이를 즐길까? 기자의 렌즈를 따라 길림성의 봄나들이 명소를 함께 살펴보자!
/ 손맹번기자



가족과 함께 장춘련화도에서 즐겨요



▲ 물임식 퍼레이드는 관광객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. / 손맹번기자



▲ 물임식 토크쇼 〈선생님 안녕하세요〉에 적극 호응하는 어린이 / 손맹번기자



▲ 복고풍의 멋진 댄스는 관광객들을 순식간에 과거 시절로 데려간다. / 손맹번기자

봄날의 쌍양에서 달콤한 딸기 채집해요

최근, 제 11 회 쌍양사령은천딸기여행시즌이 개막되면서 봄철 딸기 채집 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쌍양구의 사령을 찾아 활기찬 봄놀이를 즐기고 있다. 딸기 채집은 이제 봄철의 인기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았다. 이 행사는 5월 30일까지 지속된다.

▶ 달콤한 딸기를 먹으며 달큰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이 / 길림일보



▲ 화필로 딸기 채집원의 생기발랄한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어린이 / 길림일보

얼음새꽃 피는 산 찾아 봄과 인사해요

한송이 또 한송이 황금빛 얼음새꽃이 눈을 해치고 피어난 가운데 수많은 촬영애호가들이 통화현 무산공원과 길림시 석갑구(石匣沟) 풍경구 등을 찾아 얼음새꽃을 카메라에 담으며 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.



▲ 황금빛 꽃잎이 봄 풍경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해주고 있다. / 길림일보

상쾌한 봄바람 맞으며 등산해요

얼마전 덕혜시 15 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등산소분대가 상쾌한 봄바람을 맞으며 어른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다. 아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화사한 봄빛 속 산행을 즐겼다.



▲ 서로를 응원하는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다. / 길림일보



▲ 싱싱한 딸기를 따며 로동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관광객들 / 길림일보